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5월)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5월)로 가정의 달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모읍니다. 5월은 감사와 축복이 함께 흐르는 계절이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쉽게 지치고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는 경제의 불안, 일터의 경쟁, 관계의 단절, 그리고 점점 거세지는 날씨의 변화까지 우리를 흔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래 기도문을 상황에 맞게 문장 일부를 바꾸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5월) 활용-안내

기도는 문장보다 마음이 앞서지만, 예배의 흐름을 붙잡아 주는 언어도 필요합니다. 아래 문장들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 같은 표현을 예배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해보세요. 5월은 어린이주일·어버이주일·교사주일 등 감사의 고리가 이어지니, 이름을 한두 번 구체적으로 부르며 축복하면 회중의 마음이 더 잘 모입니다. 또한 뉴스나 계절의 변화를 과장하지 말고, 성도들의 실제 삶(돌봄, 진로, 건강, 관계)에 주님의 말씀을 연결해 드리면 기도가 더 살아납니다. 한 걸음씩.

요즘 대표 기도문 모음 (5월) 1 가정의달-감사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14)

사랑과 생명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감사의 입술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대표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공동체의 상처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찬양합니다. 부모의 수고와 눈물, 자녀의 웃음과 성장,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온 시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긴 일상에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상처 주었던 말과 태도를 돌아봅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감정으로 밀어붙였으며, 사랑하기보다 이기려 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쌓인 오해와 침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가 변명이 아니라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 스승의 날을 지나며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를 함께 품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화면과 비교의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부모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통증을 만져 주시며, 돌봄의 자리에서 지친 손길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의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식탁에 오르고, 기도가 잠자리에서 이어지며, 작은 갈등도 주님 안에서 풀어내는 믿음의 습관을 세워 주옵소서. 세상은 빠르게 변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 사람의 회복이 온 집안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린 기도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선택과 말과 표정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세워 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5월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잘되게 해 달라’는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일터와 학업, 사업과 가정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큼니다. 성과와 비교가 숨을 조이듯 다가오고, 한 번의 실수로 낙심하며, 내일을 미리 걱정하다 오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 주시고,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를 돌아봅니다. 정직해야 할 자리에서 타협하고, 사랑해야 할 관계에서 차갑게 굳어졌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낮추고, 내 이익을 위해 진실을 가렸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손의 수고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5월은 준비와 평가가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의 압박 속에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는 일용할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공’보다 ‘순종’을 먼저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루를 쌓게 하시고, 잘 풀릴 때는 교만하지 않게, 막힐 때는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조차도 주님의 더 큰 길이 열리고 있음을 믿게 하시며, 평안 가운데 맡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기도가 우리의 일과 관계를 거룩하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배의 감격을 일상의 자리로 가져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갈라지고 마음은 쉽게 거칠어지지만,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하나 됨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필요를 넘어, 교회와 나라와 이웃을 살리는 중보로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가 익숙함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매주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리에서 경쟁하지 않게 하시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수고를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믿음의 질문을 숨기지 않도록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혐오와 조롱이 대화가 되어 버린 시대에, 진실한 말과 따뜻한 책임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이웃, 이주민과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손길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주님, 자연과 삶의 터전도 지켜 주옵소서.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고 예기치 못한 재난이 찾아지는 때에, 우리에게 창조세계를 돌보는 지혜와 절제를 주옵소서. 농어촌의 수고 위에 필요한 비와 햇볕을 허락하시고, 땀 흘린 수확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과 마음의 무게로 무너지는 이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해하며, 먼저 손 내미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빛으로 서 있을 때, 주님이 큰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대표기도가 우리를 다시 주님의 얼굴 앞으로 이끌었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교회의 회복과 나라의 평안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낙심한 영혼을 붙들고, 병상과 가정의 공기가 다시 소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 아픈 사람을 작게 만들고, 기다림은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치료의 과정에서 지치고, 결과를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셨으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주님의 손은 놓이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플 때 더욱 예민해져 주변을 힘들게 했고, 기도하기보다 한숨을 먼저 내쉬었습니다. ‘왜 나에게’라는 질문으로 마음이 가득 찼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병이 죄의 징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는 가족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병과 돌봄의 자리에서 지친 손을 위로하시고, 경제적 부담과 관계의 피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에게는 지혜와 집중력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돌보심이 그들의 손을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아픈 지체를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남겨두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찾아가고 함께 울며 함께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가 더딜지라도 주님의 평강이 먼저 임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이 강건해지고, 주님의 임재가 선포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되, 회복의 과정에서도 주님이 함께 걸으심을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국경을 넘어 이웃의 아픔까지 품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전쟁과 갈등, 가난과 재난으로 신음합니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언어가 더 커지고, 작은 약자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현실을 봅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지역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풍요 속에 무감각해졌던 죄를 회개합니다. 선교를 ‘남의 일’처럼 여기고, 나의 바쁨을 이유로 기도와 헌신을 미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불붙이시고, 복음을 받았던 감격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 외로움과 건강의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현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복음이 삶의 현장에서 ‘좋은 소식’으로 증명되게 하옵소서. 또한 국내에서 이주민과 유학생, 난민을 섬기는 사역 위에도 문을 열어 주시고, 환대와 돌봄이 복음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선교의 자리로 보내 주옵소서. 멀리 떠나지 못해도, 일터와 학교, 아파트와 거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구원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예배 속에서 다시 ‘가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금과 시간과 재능이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선명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